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첫 삽

한옥마을 인근 꽃동산에 동학정신 추모 녹두관 착공 2021년까지 교육관 등 건립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할 추모 공간 건립 등 전주 한옥마을 인근 꽃동산을 무대로 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곤지산 투구봉 꽃동산 근처에 (가칭) 녹두관과 꽃동산을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최초 민관 협치가 실

현했던 전주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관련 유적지와 전적지를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을 연말까지 투구봉 꽃동산 근처에 녹두관을 만들어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 중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옮겨와 동학정신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일대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녹두관 주변에는 꽃동산을 추가로 조성해 추모객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들 공사를 끝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교육관인 파랑새관(가칭)과 민(民)의 광장, 찜질궤러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가 조성되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 시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전주화약을 계기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꿈과 좌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

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동학과 건축, 미술,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등 전주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풍남문과 한옥마을에서 투구봉 꽃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진행 속도를 높여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공원을 근거리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서학동예술촌 등과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주 한옥마을 담벼락 야경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수 있도록 다양한 야간 문화콘텐츠를 운영중이다. 13일 밤 '해빛녘에 듣는 도란도란 한옥마을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관광객이 경기전 담벼락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세얼굴

"주민 의견 귀 기울이는 따뜻한 경찰 되겠다"

임경철 고흥경찰서장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정의롭고 따뜻한 경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임경철(51) 제67대 고흥경찰서장은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 만족을 높이겠다"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율의 가치가 뿌리내릴수 있는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강조했다. 영광 출신인 임서장은 1995년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한후 서울청 정보화 장비계장, 전남청 경비교통과장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17일부터 나흘간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윤도현·장필순·임순례 등 참석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홍보대사인 가수 구하라에 이어 록스타 YB 윤도현,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영화감독 임순례 등이 동물영화제에 참석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6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윤도현이 축하공연으로 한여름 영화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영화감독이자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인 임순례 감독도 순천을 찾는다. 임 감독은

18일 순천 청춘창고에서 열리는 '리틀 포레스트' 특별상영회에서 시네토크를 연다. 제주에서 자연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싱어송라이터 장필순은 19일 조동희와 함께 야외 음악회를 연다. 지난달 24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기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구하라는 '팻티켓' 캠페인과 동물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17~21일 순천문화예술회관, CGV순천 등지에서 19개국 49편의 동물 영화를 선보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기자 노트

'폐기물 대란' 보고만 있을 건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이 거듭된 적자 운영으로, 급기야 지난 2일 멈춰섰다. <광주일보 8일자 13면 보도> 자원순환센터는 매립 방식 폐기물 처리 문제의 대안으로 건립됐다. 전체 사업비는 787억원으로, 순천에코그린(대전건설 등 6개사) 민간투자 76억원, 대출금 454억원, 정부지원금 257억원 등을 들여 2014년 4월 준공했다. 순천에코그린이 운영하다가 오는 2029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처리를 기존 매립 방식이 아닌 고열로 태워 고형연료(SRF)를 생산한다. 고형연료는 지역난방공사나 발전시설에 연료로 다시 쓰인다. 그러나 4년여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에코그린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요 예측에 따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순천시도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의 가동 중단 책임에는 순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순천시는



김은중 동부지역본부 차장

지난 2014년 1월 순천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공공시설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순천시는 뒤늦게 종량제 봉투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재개정했으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순천시의 1일 생활폐기물량은 110여 t으로, 이 폐기물이 기존 왕지매립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왕지매립장의 경우 앞으로 1년~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폐기물 대란'이 불보듯하다. 하지만 순천시는 왕지매립장 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합리적 해법은 기부채납 시기를 5년 가량 늦추는 방법이다. 기부채납 시기를 2034년으로 연장하면 운영비가 30% 가량 절감된다는 것이 운영사측의 입장이다. 순천시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순천시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무엇이 진정한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다. /ejkim@kwangju.co.kr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팀 순창서 전지훈련

8월말 9월초 2개 대회 유치, 외국 선수단 대거 참가

순창군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대표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14일 순창군에 따르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 12명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대회 전 마지막 집중 전지훈련을 순창에서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팀은 순창군청과 군산대학교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통해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필리핀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는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과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순창군이 정구대회 개최지로 명성을 알린 결과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도 경기가 가능한 실내코트 8면 등 훌륭한 경기장을 갖춘 점도 필리핀 국가대표 팀이 순창을 전지훈련장으로 선택한 이유다.

외국인 전지훈련과 함께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외국인선수단 참가도 눈에 띈다. 순창에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열리는 2018 KETF 국제주니어(U-12)테니스선수권대회에는 일본, 대만, 중국, 인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130명의 외국 선수와 국내선수 500여명이 출전한다.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일간 열리는 2018 추계 전국대학정구연맹전 및 국제정구대회에는 일본, 대만, 몽골, 중국 등 4개국 50명의 외국 선수와 국내 선수 200여명이 출전해 '정구 강국 순창'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 정구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지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면서 "성공적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찜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능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 3층, 38평, 8400만원
- 7층, 53평, 1억1400만원
-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